

# 추석 성수품 최대 60% 할인...소상공인·중기 43조 대출

## 정부 추석민생대책 발표

정부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주요 농·축·수산물 성수품을 최대 60%까지 싸게 살 수 있도록 할인 판매를 지원하기로 했다. 추석 전후 자금 사정이 녹록지 못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원의 신규 자금을 대출과 보증 형태로 공급하고,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또 청년·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최대 거주기간을 6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지난 31일 정부가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670억원을 투입해 가격이 높은 성수품의 할인 판매를 지원한다.

정부 지원 할인(20~30%)에 각 마트·농협·수협의 자체 할인분을 더하면 할인 폭은 최대 40~6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175개 하나로마트 등 대형·중소형마트와 24개

## 농·축·수산물 성수품 할인 670억·수산물 소비활성화 1440억 투입 1인당 2만~4만원 할인...온누리 상품권 환급 할인을 40%로 인상

온라인몰, 전통시장 741곳 등이 참여한다. 채소·과일 등 농산물은 온·오프라인에서 30~4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한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자조금과 대형마트 자체 할인을 연계해 20~50%까지 할인한다. 명태와 오징어 등 수산물은 최대 60%까지 할인 행사를 연다.

한 곳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1인당 한도는 2만~4만원이다. 한도는 구입처·행사 유형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할인 혜택은 반복해서 받을 수 있다.

특히 전통시장 할인 행사에서 성수품을 구매하면 더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 상품권 구매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현장 환급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명절 기간 더 많은 소비가 집중될 수 있도록 추석 상품권은 추석 기간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단축했다.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1440억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한다.

온누리 상품권 환급 할인을 30%에서 40%로 상향하고 1인당 할인 한도도 1만원 확대한, 수산물 도매시장 내 수산물을 취급하는 식당·소매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도 늘린다.

170억원을 투입해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 발행을 늘리고 모바일 상품권 발행주기도 월 1회 35억원에서 월 최대 8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명절 자금 유통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38조3000억원 상당의 대출과 3조4000억원 상당의 보증 등 총 42조73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시중·국책은행 등을 통해 공급할 방침이다.

3조6000억원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위험 부담을 경감,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직접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2020년 4월부터 올해 상반기 중 사업을 영위했다면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금 체불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의 체불 정산 지원 용자, 체불 근로자 생계비 용자 금리를 9~10월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이밖에 경우·천연가스 유가 연동보조금은 2개월 연장해 10월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은 동절기(10월~내년 3월) 가스요금에 최대 4개월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은 내달 중 9000호, 연말까지 총 6만8000호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올해 10만7000호를 신규 공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청년·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최대 거주기간을 6년→10년, 주거 급여 수급 청년이 목돈 없이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보증금 하한선을 월세 2년분에서 100만원으로 낮춘다.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체납해 퇴거 위기에 놓인 생계 곤란 공공임대 거주 가구에는 최대 300만원의 지원한다.

학자금 대출 6개월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는 9~10월 특별상당 기간을 운영해 신용 회복을 지원하고, 청년·대학생 대상 소액 금융 지원 사업인 햇살론 유스와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대상 근로자햇살론 공급 규모는 각각 3000억원, 3조2000억원으로 1000억원, 6000억원씩 증액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광주은행, 무등산 수박 1000만원 구매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지난 31일 무등산 수박 1000만원 어치를 구매했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 북구청에서 열린 구매 협정식에는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문인 광주북구청장, 무등산 수박 재배농가 등이 참석했다.

광주은행은 재배농가 감소와 최근 집중호우에 의한 폭염으로 인한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시름을 겪고 있는 무등산 수박 생산 농가를 위해 매년 무등산

수박을 구입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올해도 변함없이 수박을 구매해 재배농가와 지역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지역민들이 우리지역 대표 특산물인 무등산 수박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며 "광주·전남 대표은행인 광주은행은 지역이 어려울 때 늘 앞장서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위기징후 지역 소재 중기 선제적 자금 지원 한은 광주전남본부-광주·전남중기청 협약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31일 광주·전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위기징후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지원 협의회에 한국은행 광전본부를 포함하고 위기징후 지역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 한국은행 광전본부는 위기징후 지역 소재 사업장의 은행 대출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철 한국은행 광전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지역중소기업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우리은행, 금리인하폭·건당 감면액 '꼴찌'

5대 은행 가운데 가계대출자의 금리 인하 요구를 받아들여 가장 큰 폭으로 금리를 깎아 준 곳은 신한은행, 반대로 가장 인하 폭이 작은 곳은 우리은행으로 조사됐다. 우리은행은 금리 인하에 따른 건당이자 감면액도 가장 적었다.

은행연합회는 31일 홈페이지 소비자포털에 올린 상반기 은행별 금리인하 요구건 운영 실적 비교 공시했다. 금융소비자는 취직·승진·소득증가 등을 근거로 금리를 낮춰 달라고 은행에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평균 인하 폭은 신한은행(0.39%포인트), 하나은행(0.32%포인트), NH농협은행(0.30%포인트), KB국민은행(0.15%포인트), 우리은행(0.11%포인트) 순이었다.

공시된 총이자 감면액을 금리인하 요구 수용 건수로 나눈 결과, 건당 감면액은 하나은행이 1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15만6000원), NH농협은행(8만7000원), KB국민은행(6만4000원), 우리은행(6만3000원)이 뒤를 이었다.

전체 19개 은행 가운데 금리 인하 폭이 가장 큰 곳은 제주은행(0.97%포인트)이었다. /연합뉴스

## 금호타이어 '2023 팀 차붐 독일 원정대' 후원

금호타이어는 한국 유소년 축구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인 '2023 팀 차붐 독일 원정대'를 후원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팀 차붐 독일원정대는 한국 유소년 축구 환경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차붐군 축구상을 수상한 축구 꿈나무 16명의 선수들이 독일로 원정을 떠나는 프로그램이다. 선수들은 현지에서 분데스리가 유소년팀들과 친선경기 및 합동훈련을 경험하고, 선진 축구 문화와 유소년 정서 교류를 통해 특별한 축구 여행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팀 차붐 선수들은 금호타이어

의 공식 프리미엄 파트너사인 독일의 명문 축구 구단 바이어 04 레버쿠젠과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팀 차붐 선수들은 레버쿠젠의 홈 경기장인 바이아레나(Bay Arena)를 투어하고 레버쿠젠U14팀과도 친선경기를 치렀다. 이번 후원을 통해 금호타이어는 팀 차붐 독일 원정대 선수들의 유니폼, 유튜브 등 금호타이어 브랜드를 홍보한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19·2020시즌부터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어 04 레버쿠젠과 글로벌 공식타이어 파트너사로서 후원 계약을 체결하며 독일 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레버쿠젠은 '갈

색 폭격기'로 불리며 당대 최고의 공격수로 꼽혔던 차붐군과 현재 프리미어리그의 중심에 서있는 손흥민 선수(토트넘 홋스퍼)를 잇게 한 팀으로 알려져 있다.

윤장혁 금호타이어 G.마케팅담당 상무는 "금호타이어는 글로벌 명문 축구구단과의 프리미엄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금호타이어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며 "이번 행사로 유소년들이 축구를 통해 꿈을 하나둘 이뤄나가길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광주국세청-전주대, 인재발굴·양성 교류 협약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은 지난 31일 전주대학교와 지역인재 발굴·양성을 위한 관학 교류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전주대 회계세무학과 학생들의 세무현장 실습과 납세현의 제고, 지역인재 양성 등 공동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신고 기간 회계·세무 전공자가 신고도움미로 활동할 수 있게 되면서 방문 납세자의 신고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광주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양동구 청장은 "우수한 인재들이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을 실무현장에서 적용해 직무역량을 높일 수 있고, 지역 납세자에게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기아 '어쩌다 취준생 시즌 3' 취업 상담회 진행

8~10일 서울서 개최

기아는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앞두고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오프라인 취업 상담회 '어쩌다 취준생 시즌 3'을 진행한다. 지난 31일 밝혔다.

'어쩌다 취준생 시즌 3'은 작년 상·하반기에 이어 세 번째 열리는 기아의 취업 상담회다.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EV 성수 언플러그드 그라운드에서 열린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기아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기아의 채용 정보뿐만 아니라 취업 전반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전을 응원하는 취지로 '어쩌다 취준생'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어쩌다 취준생 시즌 3'은 기아 인사 담당자와의 1대1 취업 상담과 비크만 커리어 진단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취업 준비생들은 기아 인사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기아 채용과 자소서 작성, 면접 준비 전략 등 취업 전반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새로 실시하는 비크만 커리어 진단은 취업 준비생 각자의 특성을 파악해 업무 강점과 보완 영역 등 커리어 설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비크만 커리어 진단을 받길 원하는 희망자는 심도 있는 상담을 위해 오는 3일까지 행사 전용 홈페이지(http://kia-autoworld.com)에서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

아울러 기아는 참석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미션을 수행하면 스탬프를 받아 굿즈로 교환할 수 있는 스탬프 이벤트와 100% 당첨 룰렛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한다.

한편 기아는 하반기부터 하반기 채용 시작 시점을 9월로 통일해 부문별 대졸 신입 채용을 진행 실시 중으로, 이번 채용은 오는 11일 시작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56.27(-4.95)
↑ 코스닥	928.40(+4.59)
↓ 금리(국고채 3년)	3.711(-0.021)
↓ 환율(USD)	1321.80(-1.60)